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12. 19.

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1)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 2)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1)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2)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3)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 1)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2)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 지원대상 :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2) 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1)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2)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KOHA 사업안내

1. 보건진단

2. 도급승인을 위한 안전 및 보건평가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4.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6. 국소배기장치 정밀진단

7. EHS 컨설팅

8. 2025년 상생협력 매칭 지원 사업

- 대상 : 건설업 제외 전 업종100인 이상 모기업과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 신청방법 : 모기업,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모기업 소재지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상담 **(25.01.03까지)**

상시 견적문의 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한국산업위생협회 사업소개 참조

정부·국회

사고를 알아야 사고를 예방한다.

24년 중대재해 감소세 지속을 위한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9일(월) 「중대재해 사고 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한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으로, 현장에서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발간했다. 발간 당시 산업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발간이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인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위험요인을 알면서도 적시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법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담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이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했는지를 생생하게 담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제 사고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착안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재해예방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책자는 일반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사고를 알아야 사고를 예방한다.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12월 11일)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1년 ~ '23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 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 <사망 사고 사례> ▲'21.12.9.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 ▲'22.12.13. 재해자가 폐기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 ▲'23.12.26.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 등

이와 함께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지도한다.

* 건설현장 근로자, 청소·위생업종 근로자, 배달종사자, 농·축산업 근로자 등

** (한랭질환 예방수칙) ① 따뜻한 옷 착용, ② 따뜻한 물 섭취, ③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24년 중대재해 감소세 지속을 위한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의 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www.kosha.or.kr)'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중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12월 16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의 힘으로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키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12월 16일부터 1월 3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대기업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에는 대기업 228개소, 사내·외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 3,209개소가 참여하여 안전을 위한 공정 개선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은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붙임2 참조)할 수 있다.

김중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서, "상생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대기업은 안전보건 지식·기술·경험을 적극 전수하고, 중소기업은 안전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12월 16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11/25, 대구 달성군] 이동식비계에서 떨어짐
 [11/26, 경기 화성시] 사다리에서 떨어짐
 [12/3, 경기 광주시] 장비와 함께 떨어지며 깔림
 [12/4, 경북 포항시] 낙하물에 맞아 떨어짐
 [12/4, 충북 음성군] 펌프카가 넘어지며 붐대에 맞음
 [12/4, 경북 구미시] 회전하는 롤러기에 부딪힘
 [12/7, 경기 시흥시] 성형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임
 [12/8, 경기 여주시] 작업 준비 중 떨어짐
 [11/30, 경기 양주시] 사링기 청소 작업 중 롤러에 끼임
 [12/10, 대구 달성군] 부품 교체 작업 중 설비에 끼임
 [12/9, 경북 구미시]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12/13, 경북 예천군] 정비 중 롤러에 깔림
 [12/13, 인천 부평구] 후진 중이던 덤프트럭에 깔림
 [12/13, 경기 평택시] 고소작업대와 문틀 사이에 끼임
 [12/14, 서울 동대문구] 가설계단에서 떨어짐
 [12/16, 경기 평택시] 떨어지는 지지대에 맞음
 [12/16, 경기 광주시] 천장이 깨져 바닥으로 떨어짐
 [12/12, 충남 당진시] 가스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중독됨
 [12/17, 전북 부안군] 작업 대기 중 지게차에 부딪힘

배달종사자 안전(安全)에 색(色)을 입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이륜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도로 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12월 11일(수) 진행했다.

* 대상이 시각적으로 매우 쉽게 식별되고 인식될 수 있는 상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가속이 빨라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또한 다수의 배달종사자들이 어두운 계열의 복장과 배달통을 사용하여, 야간과 새벽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인식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전달식에서는 배달종사자에게 형광색이나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 등이 사용되어 가시성이 높은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을 보급했다.

* 빛이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반사되는 특성을 가진 소재

이번 전달식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이 고시인성 의복과 배달통 사용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안중주 이사장은 "전달식을 계기로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해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게시판](#) | [배달종사자 안전\(安全\)에 색\(色\)을 입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